‘전통과 현대 잇다’ 현대 불교미술 기획전

순창공립미술관, 내달 14일까지 본관·섬진강갤러리서 동시 진행… 칠성신앙·발원 문화 재해석

순창군이 한국 전통 불교문화와 현대 예술의 접점을 조명하는 기획전을 마련해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순창민의 정체성 있는 전시 콘텐츠 강화에 나섰다.

순창군은 오는 6월 14일까지 순창공립미술관 본관과 섬진강갤러리에서 현대 불교미술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 불교 전통 속 칠성신앙과 발원 문화를 현대적 시각예술로 재해석해 신앙과 일상,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예술적 흐름을 선보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관에서는 장지명 작가와 협업한 ‘여래가 된 별님 치성 展’이 열린다.

전시는 전통 불화 속 칠성신앙의 의미를 오늘날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과거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북두칠성을 향해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던 모습을 주요 서사로 담아냈다.

특히 순창의 대표 문화자산인 장류 문화와 연결된 장독대, 맑은 물, 별빛의 이미지를 시각화해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와 신앙적 정서를 작품 전반에 녹여냈다.

맑은 물 위에 비친 별을 바라보며 이어지던 기도의 순간을 수행과 염원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그 마음이 별이 되어 여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상징적 서사를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한다.

순창공립미술관 본관과 섬진강갤러리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현대 불교미술 기획전을 개최한다.

장지명 작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세대를 이어온 어머니들의 기도와 정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섬진강갤러리에서는 ‘붓끝에서 피어난 꽃 염원 展’이 함께 열린다.

이 전시는 현대 불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통해 전통 불화의 정신과 현대적 조형 언어가 결합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참여 작가들은 수행과 발원의 마음을 각기 다른 시각 언어로 구현하며 오늘날 불화가 지닌 확장성과 예술적 가치를 선보인다.

순창군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이 두 전시 공간을 오가며 전통과 현대,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염원이 예술로 이어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판소리 체험·달빛사랑야행 성료

남원 춘향제만의 차별화된 문화 체험 기회 제공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 기간(5월 2일~5월 5일) 동안 광한루원 일원에서 선보인 체험 프로그램 ‘판소리체험 X 달빛사랑야행’이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방문객들이 직접 한복을 착용하고 축제에 참여하도록 기획되었으며, 판소리 체험과 등불 행렬을 연계해 남원 춘향제만의 차별화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주간에 진행된 ‘판소리 체험’에서는 한복을 입은 체험객들이 광한루각에 올라 우리 소리의 기초를 배우고, 직접 춘향과 몽룡이 되어 오작교를 건너는 포토타임을 가졌다.

야간 프로그램인 ‘달빛사랑야행’은 온라인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축제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참가자들은 은은한 달빛 아래 광한루각에서 아쟁과 해금 산조 공연을 관람하고 직접 만든 등불을 들고 광한루원을 행진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특히 본인의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작성해 등불을 다는 활동은 축제의 밤을 더욱 감동적으로 수놓았다.

이번 행사는 한복대여소 ‘남원한복판’과 연계해 체험객들에게 고품질의 한복을 제공함은 물론, 대여료 일부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축제 몰입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정읍시립농악단, 15일 ‘정읍농악 판굿과 개인놀이’ 개최

정읍시는 오는 15일 오후 7시 연지아트홀에서 정읍시립농악단의 2026년 기획 공연인 ‘정읍농악 판굿과 개인놀이’를 개최한다.

정읍시립농악단은 호남우도농악의 발상지인 정읍을 대표하는 예술 단체다. 이들은 정읍농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이끌고자 다채로운 무대를 마련해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기획 공연에서는 호남우도농악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가락을 감상할 수 있다. 오채질굿을 비롯해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향으로 이동하며 방울진을 만들고 푸는 오방진굿, 호허굿 등 정읍농악 판굿을 선보이며 정읍농악의 우수성과 멋스러움을 널리 알린다.

화려한 개인 놀이마당도 준비돼 있다. 호남우도농악의 특징인 쇠 치배들의 부포놀이, 정읍농악의 백미로 꼽히는 설장구, 화려한 고깔과 채상 소고 등 다양한 진법과 춤사위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신명 나는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깡패와 굿패

8부 ‘굿패와 사랑’ (7)

달걀 꾸러미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살아 있었고 원하던 바대로 무당이 되었다. 남준이 문둥이가 되는 천형을 받았듯 명희도 눈을 잃었지만.

살아 있다고 하니 만나고 싶었다.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뿐이었다. 괴물처럼 변한 자신의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몰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평온한 그녀의 일상에 관한 파문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심려가 되었다.

혹여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을 수도 있었다. 남준은 괜한 짓을 했다는 후회를 하면서 동혜원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날부터 남준은 쉬 잔을 이룰 수 없었다. 명희가 살아 있고 용산리 연기마을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남준을 들뜨게 했고 날개 달린 말이 끄는 마차에 태워져 허공을 달리기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거대한 장벽이 우뚝 서 있었다. 남준은 그 앞에서 좌절했다. 그러나 절망만 할 수는 없었다.

남준은 닭도 울지 않는 새벽에 달걀 꾸러미 몇 개를 보자기에 싸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나병 후유증으로 다리 관절이 좋지 않았지만 명희를 향한 마음으로 버티며 걸었다.

산길을 타고 넘어가 운곡저수지를 우회한 뒤 다시 산 고갯길을 넘어 용산리 연기마을에 닿았다. 무당집을 쏘시하는 짓말이 보였다.

남준은 그 집으로 다가가 대문 밑으로 짊어지고 온 달걀 꾸러미를 밀어넣었다. 마을 사람 누군가 볼까봐 얼른 뒤돌아서 무당집을 떠났고 다시 고갯길을 넘고 저수지를 우회해 동혜원으로 돌아왔다.

해맑은 미소를 가득 담은 태양이 어둠을 빛으로 쓸어내며 남준의 마음인양 붉게 떠오르고 있었다.

남준은 명희에게 뭔가 주고 싶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다. 마음을 전한 것으로 끝내려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그게 아니었다. 달걀 꾸러미가 명희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달걀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었는지, 필요한 음식재료로 잘 쓰였는지 궁금해졌다.

달걀 꾸러미를 한번 전달하는 것으로 명희에게 이어진 마음의 끈을 끊으려 했는데 한번으로는 부족했다.

남준은 보름 뒤에도 첫닭이 울기도 전에 달걀 꾸러미를 보따리에 써서 짊어지고 선운산 고개를 넘고 인천강을 건너 연기마을로 갔고 무당집 대문 밑으로 달걀 꾸러미를 밀어 넣고 돌아왔다.

“어머! 달걀을 또 누가 넣고 갔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려고 나온 배순옥은 문 밑으로 달걀 꾸러미가 들어와 있는 걸 발견했다.

“누가 가져온 거지? 언니, 여기 또 누가 달걀을 놓고 갔어요.”

“그래? 누가 놓고 간 거냐?”

“그러게요. 우리가 굿해준 분들 중에 누군가 놓고 가신 거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다.”

가끔 주변에서 먹을 걸 가져다준다. 신수를 보러 오거나 마음에 우환이 있어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당골래에게 심의껏 음식이나 밤, 대추, 감 같은 과일들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있다.

명희와 순옥은 달걀 꾸러미를 그런 것으로 알았고 누군지 모르나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남준은 한두 번 달걀을 가져다준 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다. 보름이 지나면 달걀을 명희에게 가져다주고 싶어 좀이 쑤셨다.

잘 받았는지 잘 먹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남준은 달걀을 가져다주는 것이 명희에게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보름 쯤 되면 하루 이틀 사이로 어김없이 남준은 달걀 꾸러미를 짊어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명희 집에 갔다.

몇 달 지속되자, 순옥도 명희도 달걀을 기부하는 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보름 이쪽저쪽으로 해서 가져온다는 걸 알고 있는 순옥은 작정을 하고 달걀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새벽도 되기 전에 일어나 마루에 앉아 대문을 살폈다.

▶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 - 김현지 감독작 ‘남태령’

“남태령 대치현장, 대면과 대화 보여주고 싶었다”

“투쟁 과정서 새 인류 탄생 가능성 봐”

“제가 남태령에서 봤던 것은 대면과 대화였어요. (서로 다른 이들이) 현장에서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일 전주국제영화제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인 ‘남태령(The Longest Night: Namtaeryeong)’ 시사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지 감독과 작품에 출연한 활동가 김아영, 황승유, 김눌씨 및 전주환 진주시농민회장, 정준호·민성욱 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문석 영화제 프로그래머 등이 참석했다.

폐막작인 남태령은 지난 2024년 12월21일, 12·3 내란 사태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로 결성된 전봉준투쟁단과 경찰 간의 대치 현장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다큐멘터리 장르임에도 해학과 유머러스함을 챙겼고, ‘재밌다’는 평 뒤에 감독이 담아내고자 하는 연대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노력이 눈에 띈 점이 폐막작 선정 이유로 꼽혔다.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어른 김장하’로 알려진 김 감독은 MBC경남 소속의 프로듀서(PD)다. 김 감독은 이번 폐막작 기획 계기에 대해 “남태령 투쟁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류가 태어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남태령’의 김현지 감독(왼쪽 세 번째)과 출연진들이 지난 8일 전주디지털영화제작소에서 진행된 폐막작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 감독은 “내란 사태 이후 저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들은 절망과 무기력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세상이 이런데 뭘 만들고, 현실이 너무 드라마틱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싶으셨을 것”이라며 “그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속 해학에서 위로를 받았고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을 목도했을 때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헌법 정신이 부재하다는 것에 절망했다. 우리가 왜, 누구와 싸우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던 중 남태령 투쟁을 만났다”며 “온갖 갈등의 원인과 목적에 절망하던 중 남태령서 발견한 대면과 대화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농민단체의 투쟁으로 시작된 남태령의 대치 현장에서 힘을 보탰던 것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쏟아진 전혀 다른 존재인 20대와 30대 여성이었다. 김 감독과 출연진들은 “연대하는 힘을 길러본다면 무언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황승유씨는 “남태령 당시 참여해준 이들은 갑자기 생긴 이들도 아니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다. 대단한 이들이 아니라 나서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라며 “모두에게 이런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변 친구들과 믿어주고 연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환 회장도 “남태령으로 올라간 당일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구속되리라 생각했는데, 시민분들이 밤부터 함께해주셔서 꼬박 밤을 새우고 올라갈 수 있었다”며 “저희 농민만 가지고선 도저히 안 됐을 것이다. 사회엔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이것이 합쳐질 때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회장은 “남태령 이전에는 농민 외의 사회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던 것도 사실이다. 농사짓는 것이 가장 어려운 줄 알고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며 “그런데 남태령에서 2030 여성분들의 얘기를 듣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고, 완벽하진 않지만 좀 더 바뀌려는 각오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집단이 한 자리에서 연대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김 감독은 이를 두고 “하나의 사회를 모두가 나눠쓰고 있다는 마음일 것”이라고 답했다.

김 감독은 “농민과 2030 여성은 서로 잘 소통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렇지만 내란 이후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니 이 위협 속에서 많은 이들이 시민의 범위를 자신보다 더욱 확장하셨던 것 같다”며 “앞서 말했듯 제가 본 것은 대면과 대화다. 우리 사회가 계속 갈라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모두와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이전 개인에게만 오롯이 집중되려는 삶에서 위협이 다가오니 이 사회를 우리가 나눠쓰고 있다는 생각일 것이다. 타인이 위협하면 나도 위협하겠다는 그 생각에 모두들 광장으로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